

사범대학에서의 인성교육 효율화 방안을 위한 조사

연구 : 지도교수 면담 지도를 중심으로*

김동일** · 김태선***

국문 요약

본 연구는 서울대 사범대 학생을 대상으로 사범대의 인성교육 활성화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예비설문을 통해 학생들이 사범대의 인성교육, 특히 지도교수님과의 면담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고 이러한 예비설문과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본 설문을 제작하였다. 설문은 인성교육의 목표와 내용, 바람직한 면담지도교수님, 지도교수님과의 면담 내용, 진로 및 학업, 개인적인 문제, 지도교수님과의 면담 경험 등에 대한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사범대 학생들이 생각하는 인성교육 및 인성지도의 목표는 올바른 교사의 자질함량이나 참된 교원 양성 등으로 교사가 되기 위한 자질을 함양을 우선으로 하였다. 사범대생이 기대하는 면담 지도교수님은 친근한 상담자 혹은 인생의 스승이며, 전문지식 전달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보였다. 또한 면담을 받고 싶은 지도 교수님의 성품으로도 학생에게 관심이 많고 배려하는 교수님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외에 진로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교수님을 바란다고 하였다. 교수님과의 상호작용을 위하여 교수님이 관심 갖기를 원하는 학교행사로써는 학회관련 세미나, 신입생 환영회, 홈커밍데이 등을 꼽았다.

지도교수님과 의논하고 싶은 주제로는 '앞으로의 진로'가 두드러지게 높았고, 더불어 학업문제와 전공지식, 인생관과 삶의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했다. 또한 평소 학업 및 진로분야의 가장 큰 고민은 졸업 후의 진로이며, 교사의 장래성에 대한 확신 부족도 많은 학생이 고민하는 문제였다.

이에 따라 현재 필요한 도움은 다양한 분야 진출에 관한 정보가 가장 필요하며, 인생

* 본 연구는 2002년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사범대학 계정 일반학술연구비로 지원된 과제(도덕/인성 Lemix 발전기금)입니다.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선배로서의 조언이나 현장 선배와의 만남도 바란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도 교수님에게 졸업 후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얻고 진로에 대한 교수님의 경험담을 듣고 싶다고 하였다. 또한 진심 어린 인간적 대화 역시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은 교수님에게 상담자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으며 가장 필요로 하는 도움이 진로문제 라는 것이다.

지도교수님과 면담을 해본 학생(60.6%)이 하지 않은 학생(39.4%)보다 많았는데, 면담은 대부분 한 학기에 한번 정도 이루어졌다. 면담의 주제로는 진로문제가 가장 많았고, 학업관련조언이나 교수님의 여러 경험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한다. 면담의 좋은 점으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교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면담 경험이 없는 학생의 경우 면담이 활성화되지 않은 전공분위기 때문에 면담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였으며, 교수님의 무관심, 나의 용기부족도 하나의 이유라고 하였다.

형식적으로 방치된 면담지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면담에서 활용 가능한 워북을 제작, 교수들을 위한 면담지도 세미나와 워크샵 기획, 학생면담의 의무화, 면담지도의 학점화 등의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 주요어 : 인성교육, 지도교수, 면담지도

I. 서 론

‘대학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개개의 기대와 입장에 따라서 달라 지겠지만 일반적으로 학문탐구와 인성교육, 즉 전공에 대한 지식과 기술의 향상과 그 외의 도덕적 품성이나 인성 함양을 들것이다. 이러한 대학의 책무 중 전자에 대한 일방적 강조에 반하는 공감대는 커져가고 있다. 지식위주 교육이 수단에 치중한 교육이라는 비판 속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반드시 이웃과 사회를 위해 바람직한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니며 타인을 배려하거나 항상 리더십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안적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인성교육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등교육기관의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은 미비하다. 우리의 대학은 지난 20여 년간 학생수가 폭증하였으며 교수·학생간의 관계는 소원해졌다. 학생들의 교양과 인성을 계발하기 위한 교양교육 역시 전공을 위한 기초 도구과목으로 변질되어 버렸으며, 학생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대부분 일회적이고 임시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같이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인성교육의 부재는 시급한 문제일진데, 중·고등학교의 교사의 양성대학인 사범대학의 경우는 특히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언론을 통해 확인되는 중·고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위험수위에 이르렀으며, 이와 더불어 교사의 촌지와 심한 체벌 등의 교사의 자질문제 역시 주목받고 있다. 교육부에서도 교직 적성·인성을 종합 평가하기 위해 면접시간을 증가시키고 면접을 강화하며,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자질로 바람직한 인성과 적성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좋은 학생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좋은 교사가 필요하며 이에 예비교사의 인성측면의 교육이 강조된다.

교양수업과 같은 강의장면이외의 학교생활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인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교수와 임직원, 또래관계, 학교 외 활동이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교수와 임직원과의 상호작용은 학생들의 인성발달의 질적인 면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향이 큰 자원에 해당된다. 교수는 성인으로서의 모델이며, 학업지도와 면담을 통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조력자이다. 사범대의 경우 교수는 일반적인 전공 지식전문가, 인격자로서의 모델일 뿐 아니라 교사로서의 본보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교수는 강의를 통한 전공 지식 전달만이 아닌 학생인성의 발달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인식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실제로 우리나라의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는 상당히 소

원한 편이다. 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원장 김계현)이 지난해 말 2002학년도 학사과정 졸업생 2천151명을 상대로 항목별로 1~5점(매우 낮다~매우 높다) 등 5단계로 배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두드러진 점은 지도교수의 학생 지도 및 상담에 대한 만족도는 2.35에 그쳤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대학신문』 5월 14일자 설문조사에서도 학부생의 60.4%가 '교수와 한 번도 상담해본 적이 없다'라고 답했고, 23.8%가 '지도교수가 누군지 모른다'고 답해 학부생들과 지도교수간의 교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더욱이 2002년 『대학신문』의 10월 14일자 실시한 「서울대인 의식조사」에서 '지도교수의 학업 및 진로 지도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 사범대학생(2.09)이 가장 큰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모집단위의 광역화로 학생들은 과 결정에서부터 더 많은 진로지도를 필요로 하나 이에 반하여 교수와의 면담이나 관계는 더욱 소원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범대생이 예비교원임을 감안할 때, 사범대생의 인성교육은 보다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하며, 지도교수 면담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하여 교수가 어떤 주의나 교리를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교사의 권리를 남용하여 권위적인 태도를 지니거나 학생 개인의 개성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것은 그들의 인성발달을 촉진하기는커녕 오히려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이를 위해 교수-학생의 관계는 적절한 거리와 전문성이 존재해야 하며, 발전적인 관계와 효과적인 면담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기술을 요한다.

특히 신입 교수들에게 학생의 면담은 어렵고 부담스러울 수 있다. 보통의 연구자는 연구실에서 혼자하는 작업에 익숙하며,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함께 연구하는 동료나 권위있는 사회인들과의 만남에 보다 익숙한 사람이다. 그러한 신입교수가 학생에게 도움을 주고자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여도 학생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절한 조력을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면담 지도의 내용은 무엇이고, 이에 따라 교수가 줄 수 있는 도움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교수 워킹과 프로그램 개발, 실제적인 지침서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존의 인성교육 차원의 지도교수 면담에 대한 선행 연구를 정리하고 사범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요구를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선행 문헌과 조사 연구를 통하여 첫째, 어떤 종류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고등교육기관에서 제공되었는지 살펴보고, 둘째, 이러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대학생들의 인성개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정리하며, 셋째, 현재 서울대학교 사범대생들이 요구하는 교수와의 면담은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이에 따라 지도교수가 학생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한 실제적인 지침을 구안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가. 개념 정의

대학에서의 ‘인성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는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성’과 ‘인성교육’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1. 인성

‘인성’의 개념정의를 사전적 의미, 학문적 의미, 사회적 맥락에서의 의미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김신일의, 2001). 인성개념의 사전적 의미로는 ·인성은 개인적이며 타인과 구별되는 어떤 특성 ·인성은 부분적인 특성보다는 전체적인 특성, ·일시적이 아닌 인성은 지속성을 가진 특성, ·인성은 ‘성격’과는 달리 가치판단의 요소가 포함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학문적 차원에서 인성을 정의한다면 먼저 인성개념이 내포한 가치로는 가치 중립적인 정의, 도덕적 가치, 적응적 가치가 있다. 여기서 도덕적 가치란 주로 윤리적, 철학적인 가치를 의미하며, 윤리학자들에 의해 중시된다. 또한 적응적 가치란 주로 심리학적, 정신건강 측면에서의 가치를 의미하며 심리학자, 상담학자들에 의해 중시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성 개념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어느 한가지 가치를 내포한 개념으로만 사용될 수 없고, 이 모든 가치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인성의 다양한 개념정의를 어떠한 사회적 맥락과 접하는가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활용되는 의미가 달라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인성’의 개념은 적응적 가치를 주로 한 것이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인성교육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2. 인성교육

대학에서의 ‘인성교육’은 그에 대한 개념규정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다양하게 요구될 수 있다. 지금까지 주류로 자리매김한 인성교육은 도덕교육이나 윤리교육과 같은 전통적인 가치관교육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 하지만 인성교육을 도덕성 교육이나 윤리교육과 동일시할 경우, 현재의 사회적 맥락과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즉, 현 사회는 대인관계의 문제, 집단따돌림, 비행 등의 문제 때문에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규범, 덕목중심의 교육 관점으로 접근할 때 현실과 교육내용 및 방법간에 괴리가 있을 수 있다. (김신일의, 2001) 특히 대학에서의 인성교육은 건전한 시민, 바람직한 사회인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도덕성과 구별하여 도덕교육 외에 적응의 문제, 정신건강의 문제, 타인 및 집단과의 의사소통 기술의 문제 등을 다루어줄 필요가 있다.

나. 대학에서의 인성교육

국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대학이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제공해야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미국에서 더욱 그러한데, Bloom(1987)와 Lamm(1986) 그리고 Levine(1980)은 고등교육기관은 1960년대의 사회변화에 부흥해야하는데, 학생의 인성 발달에 있어서는 미비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버드 대학 총장 Derek Bok(1988)은 미국 고등교육의 200여 년에서 중요한 것은 학생의 인성 함양은 최소한 지적 향상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대학의 사회적 의무에 대해서 강조하며, 대학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학생의 인성개발에 기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Nebraska-Lincoln 대학의 철학과에서는 몇몇의 윤리강의를 개설했으면 경영, 교육, 언론, 기계 등 많은 전공 과정에 윤리학을 편입시켰다. 이러한 편입된 교과과정은 대학의 “가치와 윤리 그리고 사회적 책임”과 같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다. 교수의 인성교육

고등교육의 목표가 학생의 학업 성취에서 학생 전체의 발달로 바뀌어 감에 따라 많은 혁신적인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다. 이 프로그램들은 학업 지식들이 학생의 생활전반과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 이에 따라 교수들의 역할도 확대되어 강조되고 있다. 그리하여 교수들은 보통의 학업지도 책무뿐 아니라 학생과의 상담이라는 역할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이는 교수들이 최소한 인간의 성격 역동에 대해 알고 있어야하며 학생 생활의 정서적 부분과 학업의 부분을 공존 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 가장 이상적으로는 교수들이 학업문제 뿐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를 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하지만 Blum(1981)이 제시한 다음의 어려움들로 인해 교수의 학생상담은 어려움이 있다. 우선, 교수에게 중요한 가치로 매겨지는 것은 연구업적, 대학원생 훈습, 학자로서의 명성 등이고, 학부 수업이나 학생의 개인의 필요에 대해서 등한시하기 쉽다. 게다가 많은 교수들은 학생들과의 면담보다는 연구실에서 동료들과 연구에 몰두하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한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담자로서의 교수의 역할은 필요성에 있어서나 실제에 있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여러 논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학생 면담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는 변인이 무엇인가이다. 가장 주요 변인으로 꼽히는 것은 교수의 인성인데, 상담자로서 좋은 자질은 타인에게 편안함을 주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그들의 문제를 구별하여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다. Crowder(1981)은 교수가 이러한 상담자 역할을 할 때의 지침을 8가지를 제시하였다. 1.전공 과목뿐 아니라 학생에게도 관심을 두어라. 2.학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러한 사인들에 민감해라. 3.학

생들이 가능한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라. 4.제3의 귀로 들어라. 5.대화를 할 때는 간접적인 접근 방법을 활용해라. 6.학생과의 면담을 비밀로 지켜라. 7.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 8. 당신이 줄 수 있는 도움의 선을 제시하라.

1. 학업상담자로서 교수

대부분의 교수들은 임용초기에 학생들과의 면담지도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교수들이 학업 조력자라는 새롭게 부과된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업문제에 대해서만 다루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교수는 학생 생활의 중심인 학업의 조력자이자 상담자의 역할을 요구받는다. Pennsylvania University 교육상담 분야의 모든 교수들에게 이틀간의 종합 세미나를 받도록 한다. 이 세미나에서 교수들은 면담에 필요한 과정과 앞으로 당면하게 될 문제와 해결방안을 제공한다. Weinberg(1983)는 교수와 학생의 필요를 모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모든 교수들이 임용과 함께 연수를 받도록 한다. 둘째, 면담교수는 역할의 반은 가르치는 영역, 나머지 반은 지도면담의 영역으로 임무를 부과한다. 셋째, 컴퓨터를 지도면담에 활용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Iowa State University에서는 교수들에게 학생면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2학년 학생들의 면담만을 담당하는 전담교수를 채용하기도 하였다.

2. 지도교수 면담의 효과

Hardee(1970)은 교수가 학업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때 5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첫째, 지도교수는 학업에서 학생의 흥미와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 지도교수는 강의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의 수강계획을 돕는다. 셋째, 지도교수는 학생의 공부방법, 동기, 독해력, 시험대비와 같은 부분에 도움을 준다. 넷째, 지도교수는 또한 학생 자신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방법을 개발하도록 돕는다. 다섯째, 지도교수는 학생의 장기적인 진로를 고려하여 각 학생이 기회를 잘 발휘하도록 돕는다. Fred(1982)는 교수와 학생이 교수의 학업지도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보는 연구에서 강의 전반에 대한 논의, 수강 계획, 학업계획, 개인적 문제, 진로 계획을 그 변인으로 상정하였다.

1) 교수와 학생의 관계와 대학 1년의 교육효과

Spady(1970)는 학생과 교수의 대인관계 양식은 지적 흥미와 관심의 개발뿐 아니라 객관적인 학업성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Pascarella와 Terenzini(1978)는 학생과 교수가 면담을 통해 진로에 대한 고민과 전공에 대한 논의를 한 빈도와 학업수행과 인성개발이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인다고 하였다. Patrick(1980)은 Spady의 이론에 따른 초기 검사를 통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과 교수들의 면담 빈도는 학생의 학업

성적과 지적인 면 그리고 인성의 발달과 긍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게다가 초대졸 후의 차이까지 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의 질적인 측면은 오직 인성과 지적인 면의 발달과만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관계들은 학생들의 개개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교수의 학업지도가 학생의 도덕성(Wilder, 1981), 학점(Morehead & Johnson, 1964)등에 미친 영향을 연구한 논문들이 많이 있다.

2) 교수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대학생의 학업성취와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많은 논문들이 교수와 학생의 상호작용과 학업 성취와 대학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 등의 결과 변인의 관계를 주제로 연구되었다. Tinto(1987)는 교수와 학생의 상호작용은 학생의 학업과 지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교수와 면담이 활발했던 학생은 전반적인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Wilson과 동료들(1975)은 강의 실 밖에서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원하며 즐기는 교수는 수업시간에도 학생들과 활발하게 교류한다고 하였다.

3. 학생의 특성과 필요로 하는 학업지도

많은 연구자들은 학생의 인성 특성과 드러나는 성격이 그들의 면담요구와 어떤 관계가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해 왔다. Andrew와 그의 동료(1987)들은 정보, 개인적 지지의 필요와 교수와의 면담빈도는 학생의 정서적 표현과 나이에 따라서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게다가 Weissberg 등(1982)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탐색과 개인적 갈등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도움을 원한다고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수의 학생 학업지도의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러한 활동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는 못하다. 학업 조력자로는 또래에 의한 것과 교수에 의한 것 두 가지 모델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또래의 조력 체제가 실제적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Cartensen과 Silberhorn(1979)는 교수의 학업 조력이 80%의 주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교수의 학업 조력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였고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면담에서 어떠한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정의적 정보가 부족하다. 조력자의 잠재적으로 기본적으로 학생의 학업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에서부터 극단적이고 복잡한 개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도울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구는 좋은 조력프로그램을 위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한 교수의 관점(McKinney & Hartwig, 1981), 학생의 관점(Trombley, 1984)이 무엇이고 그 차이는 어떠한가(Stickle, 1982)를 보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좋은 면담을 위해 필요한 요소에 대한 교수와 학생의 관점에는 차이를 보이기는 했지만

만, 공통적으로 꼽은 두 가지 요인이 있다. 하나는 학생의 학업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원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지지와 격려를 하는 것이다. Trombley(1984)는 이러한 두 가지 요인을 정보와 상담이라 명명하였다. 그는 면담자와 학생의 관계가 발전되어감에 따라서 면담욕구가 변화되는데,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학생은 개인의 학업성적이나 성격 등의 특성에 따라서 면담 요구가 다를 수 있다. 기존에는 면담체제에 대한 평가에 의하면 대부분이 모든 학생에게 같은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 Marti와 그의 동료(1987)들은 학생의 개인 특성에 따라 필요로 하는 학업지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연구에서 도출한 학업지도의 두 가지 요인은 정보필요와 개인적지지 필요하다. 보통 높은 정보필요를 원하는 학생은 연령대가 낮으며, 보다 정서적인 표현을 잘하는 학생이다. 학점이 낮고 정서 표현력이 높은 학생은 면담자의 개인적 지지를 보다 필요로 한다. 매우 민감하고 정서적으로 풍부한 학생들이 면담 빈도가 가장 높다. 이렇게 학생들의 개인 인성에 따라 학업지도 요구가 다르며 효과적인 면담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심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4. 학생과 교수의 면담에서 교육 성향과 선호

근래에 관심이 집중되는 영역은 어떠한 대학환경이 학생의 학업과 진로탐색에 영향을 미치는가 있다. 여기에는 두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학생과 교수의 면담 빈도와 질이다. 학생들은 대학교수로부터 공식적으로 혹은 비공식적으로 면담의 기회를 갖게 되는데, 학생은 이에 따라 학업 수행과 지적 흥미, 대인관계 기술, 진로목표 발전 등과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교수는 학생의 대학생활을 통합하고 조정하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Alexitch(1994)에 의하면 학생들은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상담자에게 받은 조언보다 교수와의 면담이 훨씬 더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연구들에서 주장되기를 학생들은 종종 교수들에게서 진로와 학업에 대한 조언 뿐 아니라 개인적인 지지와 격려를 받고 있다고 한다. 교수들은 또한 종종 학생들에게 강의에 필요한 정보, 진로선택, 대학원 진학, 개인적 문제들에 대해 학생들에게 조언과 정보를 주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학습지향이 높은 학생들은 비판적 사고, 일반적 교육,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대학에 간다. 이러한 학생들은 전공과 진로선택에 있어서 흥미, 지적 도전의식 그리고 창의성을 고려한다. 반대로 성적 지향의 학생들은 더 나은 미래의 진로의 구체적인 준비를 위해 대학을 간다. 이러한 학생들은 세상을 현실적으로 바라보며 전공과 진로선택의 기준으로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지위의 상승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생각하면 학습지향의 학생들과 성적 지향의 학생들은 면담에서 서로 다른 것을 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학습지향이 높은 학생은

보다 넓은 범위의 학업에 대한 주제와 개인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을 것이다. 성적지향 학생들은 최종 결과가 무엇인가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것이기 때문에 이와는 다르다. Alexitch(1997)는 면담의 선호경향을 면담방식, 대학 정책 탐색, 진로계획, 개인 성장, 학업기술, 학업계획을 변인으로 이와 학생의 성별, 나이 등의 인구통계적 특성, 면담 경험, 교육지향 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이 원하는 면담의 선호경향은 학생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면담 경험, 교육지향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다. 학점이 낮은 여학생은 개인적인 문제 뿐 아니라 기본적인 학업기술에 대해서 도움 받고자하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Crockett와 Crawford(1989)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업결정에 있어서 보다 발전적인 면담을 원한다고 주장하였다. 여학생은 뿐만 아니라 모든 면담활동에 대해서 남학생보다 높은 선호를 보였다. 학점이 낮은 학생은 강의에 대한 조언과 학업기술, 시간관리 기술에 대해서 면담받고 싶어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1) 예비연구

예비 설문은 서울대 사범대 학생 중에서 2002학년도 여름 계절학기 ‘교육심리학’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 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예비 설문지는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도교수의 면담 활동을 중심으로 한 인성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묻는 형식으로 제시되어 되었다. 각 영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유목별로 정리하고 연구자들의 수 차례 협의를 거쳐 설문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2) 본 조사 연구

예비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본 설문지가 개발되었다. 본 조사 연구는 서울대 사범대 학생들 대상으로 인성교육 설문지를 제시하였다. 설문지의 중심내용은 인성교육에서 지도교수와의 면담에 대한 것이었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 중 남학생은 75명(41.4%), 여학생은 106명(58.6%)으로 여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2명(1.1%), 2학년이 95명(52.5%), 3학년이 49명(27.1%), 4학년이 34명(18.8%)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한편,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의 전공과 그 비율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전공별 학생 수와 비율

	학생수(명)	백분율(%)
교육학과	9	5
국어교육과	31	17.1
영어교육과	8	4.4
독어교육과	9	5.0
불어교육과	7	3.9
사회교육과	17	9.4
역사교육과	6	3.3
지리교육과	6	3.3
국민윤리교육과	3	1.7
수학교육과	19	10.5
물리교육학과	12	6.6
화학교육과	6	3.3
생물교육과	9	5.0
지구과학교육과	6	3.3
체육교육과	33	18.2
계	181	100

또한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자신의 지도교수님을 알고 있는가를 물었을 때, 151명(83.4%)의 학생이 '알고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30명(16.6%)의 학생이 지도교수님을 모르고 있다고 하였다. 지도교수님을 모른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대부분 2학년 학생이며 이중 4학년 학생도 4명 포함되어 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연구자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인성교육, 특히 지도교수와의 면담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의견을 묻고 학생들의 요구를 분석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설문 제작은 ▷ 선행연구 조사 ▷ 예비설문 제작 ▷ 본 설문 제작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1) 예비설문지

인성교육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설문지 제작에 앞서 인성교육과 학교생활만족, 대학에서의 도덕교육, 지도교수와 학생의 관계의 영향 등에 관한 연구물들을 검

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인성교육 전반에 대한 의견과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지도교수의 면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설문지는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도교수의 면담 활동을 중심으로 한 인성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묻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즉, □ 인성교육의 목표와 내용 □ 바람직한 면담지도교수님 □ 지도교수님과의 면담 내용 □ 진로 및 학업 □ 개인적인 문제 □ 지도교수님과의 면담 경험 등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2) 본 설문

본 설문은 예비설문의 응답을 바탕으로 작성한 질문지로 각 질문에 대해 4~10개의 응답을 제시하고 각각의 중요도를 1~5(1-그러하지 않음---5-매우 그러함)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설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문지의 구성	구체적 항목
사범대 인성교육의 목표	사범대 인성교육의 목표
면담 지도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교수님에게 기대하는 역할 · 면담을 받고 싶은 지도 교수님의 성품 · 지도교수님이 관심 갖기를 바라는 학교 행사 · 면담에서 의논하고 싶은 주제 · 개인적인 어려움에 대해 지도교수에게 받고 싶은 도움
현재의 고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진로 선택에서 겪고 있는 고민 · 필요한 학업/진로의 도움 ·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 고민을 나누는 상대
지도교수와의 면담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담 경험 유무 · 면담에서 다룬 주제 · 면담 후 좋았던 점 · 면담 경험이 없는 이유
지도교수의 면담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지도교수의 면담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면담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	면담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

IV. 연구결과

본 설문지를 통해 사범대생들이 생각하는 인성교육 응답들을 문항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사범대학의 인성교육 및 인성지도의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올바른 교사의 자질 함양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참된 교원 양성, 올바른 사고를 지닌 전문인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생개인의 사회성 발달은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보였다. <표2>에 개별 순위와 응답비율을 제시하였다.

<표 2> 사범대학의 인성교육 및 인성지도의 목표

1- 그러하지 않음---5-매우 그러함							명(%)
순위	인성교육의 목표	1	2	3	4	5	평균
1	올바른 교사의 자질 함양	3(1.7)	8(4.4)	28(15.5)	61(33.7)	81(44.8)	4.15
2	참된 교원 양성	7(3.9)	18(9.9)	31(17.1)	56(30.9)	68(37.6)	3.89
3	올바른 사고를 지닌 전문인 양성	9(5.0)	8(4.4)	46(25.4)	66(36.5)	52(28.7)	3.88
4	전인적인 인격완성	7(3.9)	21(11.6)	57(31.5)	58(32.0)	38(21.0)	3.55
5	학생 개인의 사회성 발달	14(7.7)	26(14.4)	60(33.1)	68(37.6)	13(7.2)	3.22

지도교수님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어떤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것은 친근한 상담자로서의 역할이다. 그에 이어 인생의 스승, 진로 안내자, 교사로서의 본보기, 전문지식 전달자 순이었는데, 각각의 응답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표 3> 지도교수님에게 기대하는 역할

1- 그러하지 않음---5-매우 그러함							명(%)
순위	지도교수님에 대한 기대역할	1	2	3	4	5	평균
1	친근한 상담자	9(5.0)	13(7.2)	28(15.5)	65(35.9)	66(36.5)	3.92
2	인생의 스승	10(5.5)	12(6.6)	46(25.4)	61(33.7)	52(28.7)	3.73
3	진로안내자	13(7.2)	19(10.5)	43(23.8)	55(30.4)	51(28.2)	3.62
4	교사로서의 본보기	10(5.5)	24(13.3)	48(26.5)	55(30.4)	44(24.3)	3.55
5	전문지식전달자	14(7.7)	16(8.8)	51(28.2)	67(37.0)	33(18.2)	3.49

면담을 받고 싶은 지도교수님 상이 어떤 분인가를 물었을 때, 가장 바라는 모습으로 학생에게 관심이 많고 배려하는 교수님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진로에 방향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교수님이라고 하였고, 친절하고 자상한 성품의 교수님을 세 번째로 꼽았다. 그 외에 학생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교수님, 전공 분야에 뚜렷한 주관을 갖고 있는 교수님을 바란다고 하였다.

<표 4> 면담 받고 싶은 지도교수님

		1- 그러하지 않음---5-매우 그러함					명(%)
순위	면담 받고 싶은 지도교수님	1	2	3	4	5	평균
1	학생에게 관심이 많고 배려함	5(2.8)	1(0.6)	17(9.4)	64(35.4)	91(50.3)	4.32
2	진로의 방향을 제시해 줌	6(3.3)	15(8.3)	27(14.9)	64(35.4)	64(35.4)	3.94
3	친절하고 자상함 성품을 가짐	7(3.9)	8(4.4)	46(25.4)	70(38.7)	47(26.0)	3.80
4	학생의 이야기를 잘 들어줌	8(4.4)	11(6.1)	36(19.9)	83(45.9)	39(21.5)	3.76
5	전공 분야의 주관이 뚜렷함	7(3.9)	20(11.0)	47(26.0)	63(34.8)	41(22.7)	3.62
6	사회 전반에 대한 지식이 해박함	8(4.4)	15(8.3)	59(32.6)	61(33.7)	33(18.2)	3.55

학교의 여러 행사 가운데, 교수님들이 보다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는 행사가 어떤 것이냐는 물음에 학회관련 세미나를 가장 우선으로 응답하였다. 신입생 환영회, 홈커밍데이, MT도 함께 참여하길 기대하는 행사로 응답하였다. 모든 행사에 관심을 가져주기 를 기대하는 정도는 낮은 순위로 응답하였다.

<표 5> 교수님의 관심을 받고 싶은 학교행사

		1- 그러하지 않음---5-매우 그러함					명(%)
순위	관심을 받고 싶은 학교행사	1	2	3	4	5	평균
1	학회관련세미나	11(6.1)	16(8.8)	55(30.4)	57(31.5)	38(21.0)	3.54
2	신입생환영회	11(6.1)	16(8.8)	55(30.4)	57(31.5)	36(19.9)	3.52
2	홈커밍데이	14(7.7)	19(10.5)	50(27.6)	46(25.4)	46(25.4)	3.52
4	MT	19(10.5)	26(14.4)	57(31.5)	47(26.0)	25(13.8)	3.19
5	축제	20(11.0)	34(18.8)	71(39.2)	33(18.2)	15(8.3)	2.94
6	모든 행사	29(16.0)	33(18.2)	68(37.6)	28(15.5)	16(8.8)	2.82
7	종합체육대회	25(13.8)	44(24.3)	67(37.0)	26(14.4)	12(6.6)	2.75

지도교수님과 면담에서 의논하고 싶은 주제를 물었을 때,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학업문제와 전공지식 그리고 인생관 및 삶의 전반에 대해서도 높은 응답 비율로 지도교수님과 의논하고 싶다고 답하였다. 가정 환경 등의 어려움이나 병역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표 6> 면담에서 의논하고 싶은 주제

1- 그러하지 않음---5-매우 그러함							명(%)
순위	면담에서 의논하고 싶은 주제	1	2	3	4	5	평균
1	앞으로의 진로	6(3.3)	5(2.8)	19(10.5)	63(34.8)	85(47.0)	4.21
2	학업문제와 전공지식	4(2.2)	5(2.8)	48(26.5)	60(33.1)	61(33.7)	3.95
3	인생관 및 삶의 전반	5(2.8)	15(8.3)	49(27.1)	65(35.9)	43(23.8)	3.71
4	장학금과 기숙사 등 학교생활	30(16.6)	38(21.0)	57(31.5)	29(16.0)	22(12.2)	2.86
5	가정환경 등의 어려움	62(34.3)	58(32.0)	43(23.8)	11(6.1)	2(1.1)	2.05
6	병역문제	103(56.9)	20(11.0)	33(18.2)	6(3.3)	2(1.1)	1.68

현재 갖고 있는 문제 중에서 학업 및 진로와 관련된 것으로 어떤 고민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은 졸업 후 진로라고 하였다. 교사의 장래성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 전공공부의 어려움 등이 고민 중 하나라고 응답하였다.

<표 7> 학업 및 진로에서의 고민

1- 그러하지 않음---5-매우 그러함							명(%)
순위	학업 및 진로에서의 고민	1	2	3	4	5	평균
1	졸업 후 진로	7(3.9)	12(6.6)	15(8.3)	51(28.2)	95(52.5)	4.19
2	교사의 장래성에 대한 확신부족	20(11.0)	27(14.9)	45(24.9)	43(23.8)	44(24.3)	3.36
3	전공 공부의 어려움	11(6.1)	37(20.4)	61(33.7)	56(30.9)	15(8.3)	3.15
4	적성과 맞지 않은 현재 전공	56(30.9)	40(22.1)	31(17.1)	32(17.7)	21(11.6)	2.57

지금 고민하고 있는 학업 및 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원하는 것은 다양한 분야 진출에 관한 정보, 인생 선배로서의 조언, 현장의 선배와의 만남, 교사 임용고시를 위한 준비, 어학 연수 및 유학에 관한 정보의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8> 학업 및 진로에 문제에서 필요한 도움

1- 그러하지 않음---5-매우 그러함							명(%)
순위	학업/진로 필요한 도움	1	2	3	4	5	평균
1	다양한 분야 진출에 관한 정보	7(3.9)	19(10.5)	22(12.2)	57(31.5)	75(41.4)	3.97
2	인생의 선택으로서의 조언	11(6.1)	9(5.0)	52(28.7)	63(34.8)	43(23.8)	3.66
3	현장의 선배와의 만남	18(9.9)	25(13.8)	36(19.9)	56(30.9)	44(24.3)	3.46
4	교사 임용고시를 위한 준비자료	27(14.9)	28(15.5)	24(13.3)	43(23.8)	57(31.5)	3.42
5	어학연수 및 유학에 관한 정보	19(10.5)	25(13.8)	47(26.0)	44(24.3)	40(22.1)	3.35
6	교육현장 실습 확대	16(8.8)	33(18.2)	50(27.6)	48(26.5)	32(17.7)	3.26
7	대학원 입학지도	26(14.4)	25(13.8)	42(23.2)	52(28.7)	32(17.7)	3.22

보다 구체적으로 지도 교수님께 바라는 학업과 진로지도가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졸업 후 진로탐색에 대한 도움을 가장 받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이어서 진로에 대한 교수님의 경험담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으며, 진심 어린 인간적 대화도 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선배들의 진로진출 현황을 알고 사례를 듣고 싶다고 하였고, 현재의 전공이 아닌 다른 전공을 택할 때에도 도움을 받고 싶어하였다. 수강정보나 졸업정보 그리고 병역 문제에 있어서는 지도 교수님께 기대하는 도움은 아니라고 응답하였다.

<표 9> 지도교수님께 바라는 학업 및 진로지도

1- 그러하지 않음---5-매우 그러함							명(%)
순위	교수님께 바라는 학업/진로지도	1	2	3	4	5	평균
1	졸업 후 진로탐색	2(1.1)	4(2.2)	27(14.9)	64(35.4)	82(45.3)	4.23
2	진로에 대한 교수님이 경험담	4(2.2)	11(6.1)	35(19.3)	76(42.0)	53(29.3)	3.91
3	진심 어린 인간적 대화	8(4.4)	10(5.5)	35(19.3)	72(39.8)	53(29.3)	3.85
4	선배들의 진로진출 현황과 사례	7(3.9)	15(8.3)	41(22.7)	65(35.9)	53(29.3)	3.78
5	전공과 다른 진로선택시 연계와 소개	10(5.5)	19(10.5)	37(20.4)	63(34.8)	49(27.1)	3.69
6	전문적인 지식전달	4(2.2)	25(13.8)	56(30.9)	58(32.0)	37(20.4)	3.55
7	의도적인 대화 기회마련	9(5.0)	18(9.9)	55(30.4)	58(32.0)	37(20.4)	3.54
8	대학원 입학지도	13(7.2)	27(14.9)	57(31.5)	54(29.8)	26(14.4)	3.30
9	수강정보 및 졸업 학점 정보	39(21.5)	44(24.3)	61(33.7)	25(13.8)	9(5.0)	2.56
10	병역문제	100(55.2)	31(17.1)	24(13.3)	9(5.0)	1(0.6)	1.67

사범대학에서의 인성교육 효율화 방안을 위한 조사 연구 : 지도교수 면담 지도를 중심으로 17

학교 생활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어떤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진로선택의 어려움이 가장 두드러진 고민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10>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1- 그러하지 않음 --- 5-매우 그러함							명(%)
순위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1	2	3	4	5	평균
1	진로 선택시 어려움	11(6.1)	23(12.7)	33(18.2)	55(30.4)	54(29.8)	3.67
2	학업을 따라가기 어려움	28(15.5)	43(23.8)	71(39.2)	28(15.5)	6(3.3)	2.66
3	장학금 및 경제적인 어려움	34(18.8)	59(32.6)	41(22.7)	26(14.4)	15(8.3)	2.59
4	적성과 맞지 않은 현재전공	49(27.1)	45(24.9)	29(16.0)	37(20.4)	16(8.8)	2.58
5	대인관계의 어려움	38(21.0)	53(29.3)	48(26.5)	28(15.5)	9(5.0)	2.53
6	기숙사생활의 어려움	116(64.1)	31(17.1)	19(10.5)	1(0.6)	2(1.1)	1.47

위에서 말한 고민들의 의논상대로는 친구가 가장 많았고 혼자 고민한다는 응답도 높았다. 대학생활문화원의 상담을 이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표 11> 고민의 의논 상대

1- 그러하지 않음 --- 5-매우 그러함							명(%)
순위	고민자의 의논 상대	1	2	3	4	5	평균
1	친구	7(3.9)	8(4.4)	33(18.2)	77(42.5)	51(28.2)	3.89
2	혼자고민	9(5.0)	17(9.4)	31(17.1)	67(37.0)	52(28.7)	3.77
3	부모님	26(14.4)	48(26.5)	48(26.5)	31(17.1)	22(12.2)	2.86
4	선배	43(23.8)	42(23.2)	36(19.9)	36(19.9)	17(9.4)	2.67
5	목사님 등 종교적 스승	140(77.3)	9(5.0)	10(5.5)	9(5.0)	4(2.2)	1.42
6	대학생활문화원(상담)	132(72.9)	20(11.0)	16(8.8)	4(2.2)	2(1.1)	1.41

앞서서 질문한 개인적인 어려움의 경우 지도교수님이 어떻게 도와주기를 바라는가를 물었을 때, 진로에 대한 정보제공, 교수님의 경험에 바탕한 조언, 좋은 책을 추천해주거나 학업계획에 대한 조언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도 중요하며 적절한 공부방법을 제시해주기를 바란다고 응답하였다.

<표 12> 학교생활 고민에 필요한 교수님의 도움

1- 그러하지 않음---5-매우 그러함							명(%)
순위	받고 싶은 교수님의 도움	1	2	3	4	5	평균
1	진로에 대한 정보제공	9(5.0)	10(5.5)	24(13.3)	64(35.4)	68(37.6)	3.98
2	교수님의 경험에 바탕한 조언	8(4.4)	8(4.4)	42(23.2)	72(39.8)	45(24.9)	3.79
3	도서 추천 및 학업계획관련 조언	11(6.1)	18(9.9)	48(26.5)	57(31.5)	40(22.1)	3.56
4	따뜻한 위로와 격려	15(8.3)	24(13.3)	45(24.9)	59(32.6)	33(18.2)	3.40
5	적절한 공부방법제시	15(8.3)	26(14.4)	49(27.1)	56(30.9)	27(14.9)	3.31
6	대학원 진학을 위한 준비 지도	25(13.8)	25(13.8)	50(27.6)	47(26.0)	28(15.5)	3.16

지도교수님과의 면담 경험의 유무를 묻는 질문에 109명(60.6%)의 학생이 한번도 없었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71명(39.4%)은 있다고 답하였다. 지도교수님과의 면담이 한 학기에 가장 많은 경우는 3번이었고, 대부분은 1회에 그쳤다.

지도교수님과 면담경험이 있는 학생들에게 면담을 할 때 나누었던 주제가 무엇이었는데 이를 물었다. 이에 진로문제, 학업관련 조언, 교수님의 경험담 등의 이야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였다.

<표 13> 면담의 주제

1- 그러하지 않음---5-매우 그러함							명(%)
순위	면담의 주제	1	2	3	4	5	평균
1	진로문제	8(4.4)	9(5.0)	11(6.1)	20(11.0)	23(12.7)	1.41
2	학업관련조언	16(8.8)	14(7.7)	14(7.7)	19(10.5)	8(4.4)	1.12
3	교수님의 여러 경험담	23(12.7)	13(7.2)	11(6.1)	16(8.8)	8(4.4)	1.03
4	휴학과 장학금문제	29(16.0)	15(8.3)	14(7.7)	5(2.8)	8(4.4)	0.90
5	대인관계	32(17.7)	14(7.7)	16(8.8)	8(4.4)	1(0.6)	0.81
6	학생회 사업관련	47(26.0)	14(7.7)	5(2.8)	1(0.6)	4(2.2)	0.64

지도교수님과의 면담 경험으로 좋았던 점이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교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 점을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며 외에도 진로에 대한 생각의 폭이 넓어진 점, 격려와 위로가 되었으며, 다양한 정보를 획득에 있어서 도움을 받았다고 하였다.

<표 14> 면담 후 좋은 점

1- 그러하지 않음---5-매우 그러함							명(%)
순위	면담 후 좋은 점	1	2	3	4	5	평균
1	교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	17(9.4)	10(5.5)	9(5.0)	24(13.3)	12(6.6)	1.22
2	진로에 대한 생각 폭의 다양화	18(9.9)	15(8.3)	16(8.8)	17(9.4)	6(3.3)	1.07
3	격려와 위로	17(9.4)	15(8.3)	21(11.6)	13(7.2)	6(3.3)	1.06
4	다양한 정보 획득	21(11.6)	19(10.5)	18(9.9)	9(5.0)	5(2.8)	0.96
5	대인관계와 리더쉽에 대한 조언	32(17.7)	21(11.6)	12(6.6)	3(1.7)	2(1.1)	0.73

면담경험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그 이유를 물었는데, 많은 학생이 면담이 비활성화된 전공분위기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였고, 교수님의 무관심도 면담이 꺼려지는 이유이며 나의 용기부족에도 이유가 있다고 하였다. 교수님의 바쁜 일정과 권위적인 태도가 면담을 어렵게 한다고 하였다. 면담할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학생들도 있었다.

<표 15> 면담을 못한 이유

1- 그러하지 않음---5-매우 그러함							명(%)
순위	면담을 못한 이유	1	2	3	4	5	평균
1	면담이 비활성화된 전공분위기	1(0.6)	4(2.2)	7(3.9)	25(13.8)	60(33.1)	2.61
2	교수님의 무관심	4(2.2)	11(6.1)	28(15.5)	20(11.0)	32(17.7)	2.15
3	나의 용기부족	10(5.5)	4(2.2)	27(14.9)	37(20.4)	20(11.0)	2.09
4	교수님의 바쁜 일정	13(7.2)	8(4.4)	25(13.8)	28(15.5)	22(12.2)	1.99
5	교수님의 권위적인 태도	26(14.4)	17(9.4)	24(13.3)	12(6.6)	13(7.2)	1.51
6	면담할 문제 없음	35(19.3)	20(11.0)	22(12.2)	7(3.9)	5(2.8)	1.23

이상과 같이 각 문항에 따른 응답순위와 응답비율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라 응답순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해보았다.

설문 응답자 중 '교육 심리학'을 듣는 수강생 82명에게 마지막 문항으로 '면담받고 싶은 내 마음의 스승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첨가하였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학생은 응답하지 않거나 '아직없다'고 응답하였고 원하는 교수님의 이름을 언급한 학생은 5명에 그쳤다.

지도교수님을 알고 있는 학생과 모르는 학생들이 응답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부분은 1)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적성에 맞지 않은 현재의 전공이라는 응답으로 그 비율에 있어서 지도교수님을 모르는 학생이(3.37) 지도교수님을 아는 학생(2.42)보다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2)어려움에 대해서 지도교수님께 받고 싶은 도움으로 진로에 대한 정보제공이라는 응답을 한 비율에서도 지도교수님을 모르는 학생이(4.38) 지도교수님을 아는 학생(3.90)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성별의 차이를 보인 문항은 1) 지도교수님에게 기대하는 역할 5개의 문항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기대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전문지식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여학생이(3.67) 남학생(3.24)보다 원한다고 응답하였다. 2) 면담받고 싶은 지도교수님의 성향에 대해서도 대체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뚜렷한 성향에 대한 선호를 보였는데, 여학생(4.12)이 남학생(3.69)보다 진로의 방향제시를 해 줄 수 있는 교수님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 교수님과 의논하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진로'라는 응답에서 여학생(4.43)이 남학생(3.91)보다 더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4) 현재의 학업/진로에서의 고민에 대해서도 여학생(4.16)이 남학생(3.69)보다 졸업후의 진로에 대해 많이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서울대 사범대 학생을 대상으로 사범대에서의 인성교육 활성화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78명의 사범대생을 대상으로 '사범대에서의 인성교육'에 대한 의견을 묻는 예비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학생들이 사범대의 인성교육, 특히 지도교수님과의 면담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본 설문은 예비설문의 내용과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인성교육의 목표와 내용, 바람직한 면담지도교수님, 지도교수님과의 면담 내용, 진로 및 학업, 개인적인 문제, 지도교수님과의 면담 경험 등을 중심으로 학생의 의견을 물었다. 질문지는 각 문항에 대한 중요도를 1~5로(1-그러하지 않음---5-매우 그러함) 표시하도록 하였다

본 설문에는 사범대생 181명이 참여하였으며 참여학생 중 여학생(58.6%)이 남학생(41.4%)보다 많았으며 학년별로는 2학년(52.5%)이 가장 많았고 3학년(27.1%), 4학년(18.8%), 1학년(1.1%) 순으로 많았다. 학생의 전공은 사범대 15개 학과에 걸쳐 있으며 국어교육과(17.1%), 수학교육과(10.5%), 사회교육과(9.4%) 학생이 다른 과에 비해 많은 편이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의 지도교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경우(83.4%)가 모르는 경우(16.6%)보다 많았다.

본 조사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범대 학생들이 생각하는 인성교육 및 인성지도의 목표는 올바른 교사의 자질함량이나 참된 교원 양성 등과 같은 것으로

학생들은 교사가 되기 위한 자질을 기르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특히, 사범대 학생들이 면담 지도교수님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친근한 상담자 혹은 인생의 스승이라고 하였다. 이에 비해 전문지식 전달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또한 면담을 받고 싶은 지도 교수님의 성품으로도 학생에게 관심이 많고 배려하는 교수님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외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진로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교수님을 바란다고 하였다. 학생들이 원하는 지도교수님은 학생들이 상담자에게 기대하는 바와 같이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분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도움 받을 수 있는 면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교수님이 관심 가져주기를 바라는 학교행사로는 학회관련 세미나, 신입생 환영회, 홈커밍데이 등을 꼽았다. 지도교수님과 의논하고 싶은 주제로는 '앞으로의 진로'가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으며, 더불어 학업문제와 전공지식, 인생관과 삶의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였다.

학생들이 학업 및 진로분야에서 가장 큰 고민으로는 졸업 후의 진로를 꼽았다. 또한 교사의 장래성에 대한 확신부족에 대해서도 많은 학생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고민에 대해 도움받고 싶은 바는 다양한 분야 진출에 관한 정보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생 선배로서의 조언이나 현장 선배와의 만남도 바란다고 하였다.

사범대생들은 앞선 고민에 대해서 지도 교수님에게 바라는 바는 졸업 후의 진로 탐색, 진로에 대한 교수님의 경험담을 듣고 싶다고 하였다. 또한 진심 어린 인간적 대화 역시 많은 학생들이 원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앞의 질문에서의 응답처럼 학생들이 교수님에게 상담자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으며 가장 필요로 하는 도움이 진로에 대하나 도움임을 나타낸다.

사범대생이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은 대인관계보다는 진로선택의 어려움이 많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은 주로 친구들과 함께 의논하고 아니면 혼자 고민한다고 응답하였다. 지도교수님이 이와 같은 어려움에 어떤 도움을 주기를 바라는가라는 질문에는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기를 바란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교수님의 경험에 바탕한 조언을 듣고 싶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도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지도교수님과 면담을 해본 학생(60.6%)이 하지 않은 학생(39.4%)보다 많았으며 면담이 경험이 있었던 학생은 대부분 한학기에 한번의 면담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지도교수님과 면담을 할 때 나누는 주제로는 진로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업관련 조언이나 교수님의 여러 경험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한다. 면담을 하여 좋았던 점으로는 교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다. 면담 경험이 없는 학생의 경우 면담이 활성화되지 않은 전공분위기 때문에 면담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였으며, 교수님의 무관심, 나의 용기부족도 하나의 이유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사범대학에서의 인성교육 일환으로 지도교수 면

담활성화를 꼽았으며 이를 중심으로 사범대 학생들의 면담에서의 요구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첫째, 사범대생의 요구를 분석한 것으로 성별의 차이는 살펴볼 수 있었으나 학년의 차이는 사례수가 작아 차이를 살펴보기 못하였다. 둘째, 면담대상자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만을 요구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여기서 면담을 수행하는 교수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더한다면 효과적인 면담을 위한 좋은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채택한 리커트 질문지는 그 속성상 평균치의 편차가 크지 않으므로 순위의 해석에 보다 주의를 요한다.

이상과 같은 제한점이 있으나,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탐색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다음과 같이 본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사범대에서의 인성교육 목표는 교사의 자질함량이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 사범대에서의 인성교육은 일반적인 고등교육기관의 인성교육의 목표인 ‘전인적 인격완성’ 보다는 구체화·특수화되어 ‘올바른 교사의 자질 함량’ 혹은 ‘참된 교원 양성’과 같은 내용이 인성교육의 목표가 된다. 문용린(1999)은 전문인 도덕성 개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교직 도덕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는 교직활동과 관련하여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딜레마를 제시하고 심사숙고할 기회를 준 후 또래, 선배, 교수들과 토론하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인성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범대생의 인성교육은 보다 전문화되어야 하며, 교수님과과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사범대생이 면담교수로서 원하는 상은 친근한 상담자이다. 학생들은 교수의 모습에서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고 배려해 줌’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이러한 성품을 기대한다. 하지만 앞서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연구 집중해온 교수에게는 ‘상담자’라는 또 하나의 역할이 막연하고 부담스럽기 마련이다. 더군다나 신입교수의 경우는 ‘연구자’에서 ‘교수’로 새롭게 부과되는 역할에 더하여 학생의 면담지도에 시간을 할애하고 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실제 학생들은 면담을 하지 못하는 것은 교수님의 무관심과 바쁜 일정 그리고 권위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신입교수를 위한 연수에 ‘학생 상담과 지도’를 위한 세미나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교수에게 주어지는 역할 중에서 ‘상담’의 영역을 보다 강조해야 한다.

셋째, 사범대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학업 및 진로 문제이며 지도 교수님에게 도움 받고 싶은 부분도 이 영역이다. 이는 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이 실시한 2001년 신입생 실태조사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신입생들은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문제와 입학 후 예상되는 걱정거리를 각각 적성 및 진로에 대한 문제와 학교공부를 1순위로 꼽았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 지도교수님과의 면담에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가장 이야기하고 싶고 현재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졸업 후의 진로’라고 응답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학생들은 사범대학이라는 특수목적의 가진 곳에 입학하였지만 일

반적인 기대와 달리 진로에 대한 그림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봉환(1997)의 논의처럼 사범대생들이 교사가 되고 싶은 바람은 강하나 이의 달성에 대해서 회의적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학생들은 또한 진로 고민으로 '교사의 장래성에 대한 확신부족'을 많이 꼽았으며, 진로에 도움을 받을 때도 '다양한 분야 진출에 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싶다고 답하였다. 학생들은 지도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 보다 확신을 갖고자 하며, 교사 외의 진로모색을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구하고 있다.

넷째, 위와 같은 진로에 대한 고민의 강도는 여학생이 보다 강하며 지도교수님을 모르는 학생일 수록 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진로개척이 어려운 현실에서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는데, 여학생들은 지도교수님이 진로의 방향을 제시해주시기를 바라는 성향이 보다 강하며 졸업후의 진로에 대해서도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다섯째, 사범대에서의 면담지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설문 에 응한 학생 중 지도교수와의 면담경험이 있는 학생은 60.6%이며 이들 대부분은 한 학기에 1회의 면담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학생들은 면담지도의 활성화 방안으로 '면담의 의무화'를 적극 원하고 있다. 한 학기에 1회 이상의 면담을 의무화하고, 이를 실제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학생들이 면담을 시도하지 못한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전공에서의 면담 비활성화 분위기'라고 하였다. 실제적으로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지도 교수제를 보다 강화하고 의무적인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지도교수와의 면담을 학점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여섯째, 이러한 면담 의무화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앞서 논의한 교수들의 학생 상담을 위한 연수이며 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다. 이에 따라 지도 교수가 사범대학 생과의 면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면담지도 워크북(Workbook)"을 개발하고 실제 교수 연수를 실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워크북에는 일반적인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면담의 사전 검사로 활용이 용이한 검사-대학생활적응도 테스트, 진로성숙도-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교수가 학생들과 함께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집단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는데, 학생들이 가장 도움 받고자하는 진로부분의 활동이 유의할 수 있다. 교수는 학생들에게 일생을 두고 하게되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진로생애 무지개'를 그려보도록 할 수 있고, 그 동안의 꿈이 어떻게 변해왔고 왜 그랬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내 꿈의 변천사' 써보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을 제시함으로써 교수가 상황에 적절한 프로그램과 정보를 활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김계현, 김창대(2001). *고등교육에서 인성교육의 현주소 및 발전방향 : 제1회 인성교육 심포지엄 논문집*. 한국상담학회
- 김동일(1999). *교원양성대학에서의 인성교육 효율화 방안연구*. 인천교육대학교 교육연구소.
- 김신일, 김창대, 남상인, 한승희(2001). *인성교육의 확대와 정착에 관한 연구*. 2000년 교과교육공동연구 결과보고서
- 문용린(1995). *대학인성교육의 교육학적 기초 : 인성교육 심포지엄*.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문용린(1999). *교사의 도덕성 함양 프로그램 개발*.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 서울대학교교육연구소 편(1994). *교육학용어사전*. 서울 : 도서출판하우.
-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2001). *2001학년도 서울대학교 신입생 특성조사 보고서*
- 손봉호(1995). *인성교육의 철학적 기초 : 인성교육 심포지엄*.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서봉연(1995). *인성교육의 심리학적 기초 : 인성교육 심포지엄*.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황정규(1995). 21세기에 대비한 교육적 인간상. *교육학연구* 33-2 ; 133~150.
- 대학신문(2002.10.14) 서울대인 의식조사
- 중앙일보 (2001.3.4) 서울대 졸업생, 학교교육 불만족
- 중앙일보 (2001.5.14) 서울대생 24%, 지도교수 몰라
- Andrew, M., Adrews, D., Long,E., & June Henton(1987). Student Characteristics as Predictors of Perceived Academic Advising Needs.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8, 60-65
- Alextich Louise R.(1997). Students' educational orientation and preferences for advising from university professor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8(4), 333-343.
- Allport, G. W. (1961).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NY : Holt.
- Bok, D.(1988). Ethics, the university, and society. *Harvard magazine*, 90(5), 39-49
- Bloom, A.(1987). *The closing of the American mind*. New York : Simon and Shuster.
- Blum, Paul Von(1981). Reflections on the Professor-Counselor. *College Student Journal*, 15(3), 262-266.
- Cartensen, D.J., & Silberhorn, C.(1979). *A national survey of "academic advising."* Iowa City, IA:American College Testing Program.
- Crockett, J.B., & Crawford, R.L.(1989). The relationship between Myers-Briggs Type

- Indicator(MBTI) scale scores and advising style preferences of college freshmen.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0, 154-161.
- Crowder, William W.(1981). The Role of the University Professor as Counselor. *College Student Journal*, 15(4), 393-395
- Stickle, F. (1982). Faculty and Student Perception of Faculty.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62-265.
- Hardee, M.D.(1970). Faculty advising in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 Personnel Series, 9. Washington, D.C
- Lamm, N.(1986). A moral mission for college. *New York Times*, 35, 1.
- Levine, A.(1980). *When dreams and heroes died*. San Francisco: Jossey-Bass.
- Mathiasen, Robert E.(1998). Moral education of college students : faculty and staff perspectives. *College Student Journal*, 32, 374-377.
- Mckinney, C.W. & Hartwig, M.(1981). A comparative study of student and academic department personnel perceptions of advising at the University of santa Barbara. *College and University*, 56, 264-282.
- Morehead, C.G., & Johnson, J.C.(1964). Some effects of a faculty advising program.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43, 139-144.
- Patrick T. Terenzini & Ernest T. Pascarella(1980). Student/Faculty relationships and freshman year educational outcomes : a further investigation.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521-528.
- Pscarella, E.T.(1980). Student-faculty informal contact and college outcome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0(4), 545-575.
- Pascarella, E.T., & Terenzini, P.T.(1976). Informal interaction with faculty and freshman ratings of academic and non-academic experience of colleg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Italic, 35-41.
- Pascarella, E.T.(1984). college environmental influences on students' educ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Higher Education*. 55, 751-771.
- Spady, W.(1970) Dropouts from higher education: An inter-disciplinary review and synthesis. *Interchange*. 1, 64-85.
- Stickle,F.(1982). Faculty and student perception of faculty advising effectiveness.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3, 262-264.
- Tinto,V.(1987). *Leaving college : Rethinking the causes and cures of student attrition*.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Trombley,T.B.(1984). An analysis of the complexity of academic advising.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5, 234-240.

- Weinberg Scott S.(1983). Professional : Welcome to academic advising. *College Student Journal*, 348-357.
- Weissberg, M., Berentsen, M., Cote, A., Cravey, B., & Heath, K.(1982). An assessment of the personal, career, and academic needs of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3,
- Wilder, J.R.(1981). Academic advisement: An untapped resource. *Peabody Journal of Education*, 58(4), 188-191.
- Wilson,R.F., & Cook,E.P.(1984). *Concurrent validity of four androgyny instruments*. *Sex Roles*, 11, 813-837.
- Woodside, Brianne M.; Wong, Eugene H. Wiest, & Dudley J.(1999). The effect of student-faculty interaction on college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and self concept. *Education*, 119, 730-733.

<Abstract>

Facilitating character education in college of education : With special regard to faculty advisors

Kim, Dong-il* · Kim, Tae-Sun**

The importance of character education in higher education has been well documented. For students' character development at college level, faculty members provide significant role models which serve to introduce students to the professional community. The student-faculty interactions are so important that faculty members are often in a position to perform counseling functions as an adjunct to their regular academic du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students' perception of character education in college of education and to analyze their needs for advice from the professor. The participants consist of 181 undergraduate students at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A questionnaire contains goal of character education in teachers' college, desirable personality of an advisor, personal problems, perceptions of students' advising needs and quality, and the frequency of student-faculty contacts.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 that students regard "being a good teacher" as a goal of character education in the college of education. They also expect a professor to be an attentive counselor. In addition, it is critical to provide various information on career options. The major problem that the students face in the university is their long-term career plan. Around 40% of the students never contacted their professors formally or informally. Much less, about 17% of the students even don't know who their advisor is. They have difficulty in making

*)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Graduat student, Department of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access to professors because professors are so busy and students have lack of courage as well.

To facilitate faculty-student advising sessions, an action plan is needed, including a) a workbook of advising/counseling programs for faculty members; b) a compulsory faculty orientation program for all the new-coming faculty members; c) giving a concrete credit for advising.